**왕상2247 Note**

**대리관 / 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왕상22:47]주제1: [아합의 최후]주제2: [여호사밧의 행적]

▶ 에돔에는...섭접왕이 있었더라 –

 '섭정왕'(\*, 나차브 멜렉)이란 원어상 '세운 왕'이란 뜻이다. 즉 이는 여호사밧이 에돔에 세운 대리 통치자를 가리킨다. 여호사밧 통치 당시 에돔(Edom)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다. 45절 주석 참조.

그런데 유다의 에돔 장악은 곧 솔로몬 이래로 부진했던 아라비아와의 대상(隊商) 및 해상 무역의 재개(再開)를 의미한다.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임명한 섭정왕의 에돔 통치는 유다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는 것이었다.

한편 왕하 3:4 이하의 기록에 의하면, 모압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이스라엘, 유다 그리고 에돔의 세 왕이 출전한 것으로 되어있다. 이때의 에돔 왕 역시 여호사밧이 세운 섭정왕일 가능성이 높다(Maclean).